



빨막안 업데이트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2월 22일

성전 산에 이른 지진

지난 2월 15일 금요일, 진도 5.3에 달하는 지진이 중동을 강타했습니다. 진앙지는 레바논의 타이어(두로)로부터 20km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 국경 근처로 밝혀졌습니다. 진동은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느껴졌고, 성전 산 위 바위 돔 사원 앞의 포장된 곳이 흔들려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은 길이가 2m, 너비가 1.5m, 그리고 깊이가 1m였으며, 모스크 관리자들은 나무 기둥들로 그 곳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슬람 운동에서는 그 구멍을 인해 이스라엘을 탓하며(!), 산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했기 때문에 모스크의 지반이 약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의 반유대적 발언

또 다른 언어 폭력은 이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로부터였습니다. 그는 지난 수요일, 지지자들과 이란 남부에서 가진 집회에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불결한 박테리아”라 표현했습니다.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흐마디네자드의 발언에 “참을 수 없으며, 용서될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전해집니다.

비슷한 경우로, 이란의 국군 총수 무함마드 알리 자파리는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에게 “헤즈볼라의 강력은 레바논에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날 암적인 존재 이스라엘의 멸절을 목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과 “더 콜(부르심)” 집회- 예루살렘

세계적 안목으로 기도하기

저는 “더 콜”의 지도자들(루 앵글, 마이크 비클, 체 안, 로리 앨렉)이 어째서 이 5월 11일(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거룩한 성회”의 영적 가이드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중 한 이른 아침, 주께서는 이사야 56:7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 집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나타난 집은 예루살렘의 옛 성전이자,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몸(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도가 열방을 향해 드리지

는 기도 센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목적은 이러한 지구적 관점을 갖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느 땅에서라도 지구적 관점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길 바라시는 무언가(일종의 영적 수도)가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전세계를 향한 기도가 드러지는 것입니다. 워싱턴 DC가 미국 전체를 위해 기도할 장소요, 로마가 카톨릭 모두를 위해 기도할 장소이듯 예루살렘은 세계를 위해 기도할 곳입니다.

댄 저스터는 성전에서 드러진 70마리의 황소(민 29)가 전세계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적 중보의 행위였다고 가르칩니다. 성전의 분향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늘에 드러진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참고: 계시록 8:3-5; 누가복음 1:9-11).

오늘날은 인터넷 기술과 위성 TV 덕에, 세계적 안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 중보가 이스라엘 내의 메시아니 성도들과 엮여지고 이어짐이 얼마나 합당한지요.

지구적 관점, 세계의 현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단상들을 적어봅니다.

사도행전 1:8 - 세계 복음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명령의 완수, 온 족속(특히 아시아 지역의 대추수)의 변화, 로드 투 제루살렘 *Road to Jerusalem*(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비전.

사도행전 2:17 - 세계적 부흥: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적과 예언, 사도적 사역, 경배 등 포함.

요한복음 17:21 - 진실된 교회의 연합: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순결과 능력, 열정 포함. 준비된 신부. 카톨릭과 개신교 교파들의 변혁.

로마서 11:26 -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종교의 자유, 메시아니 유대인(남은 자)들의 성장,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하심.

시편 122:6 - 중동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 안보, 예슈아를 통한 아랍과 유대민족의 화해, 이사야 2장과 19장의 성취 포함.

마태복음 3:2 - 도덕적 타락에 대한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특별히 서구 세속 사회, 성적 부도덕성 및 변태성, 낙태, 오락 산업, 이세벨의 영, 반역, 비술(秘術) 등 포함.

누가복음 11:18 - 사탄의 왕국을 분열시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슬람 지하드와 테러, 반선교사, 반유대주의의 영들을 묶음. 기독교 교사들의 핍박, 마지막 때의 짐승, 조직 범죄 등.

디모데 전서 2:2 - 정부 지도자들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혜와 공의, 통치 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경찰, 군대, 법정, 입법부, 미국의 대통령 포함.

누가복음 19:13 - 기업 지도자들을 위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시장에 있는 전문인 사역자들의 고결함, 관대함, 일자리 제공, 가난과 질병에 대한 투쟁, 환경 보호, 노동 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생활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시록 22:20 - 재림을 위하여: "아멘 주 예수아(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분의 발이 다시 올리브 산을 디딜 그 날을 위하여. 아마겟돈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지상 성취, 죽은 자들의 부활 등 포함. 저희 믿는 유대인들은 저희의 관점을 여기에 추가시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 23:39" 모든 기도는 결국 예수아의 재림을 향합니다. 그 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까지 모든 기도들은 당연히 그 도시와 연결됩니다.

예수아께서는 마태복음 6:10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간단한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땅"이라고 하신 것은, 전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지구에서 이뤄지이다."

번역- 고병현

Shaul Byunghyun Go